



[경제종합] 리비안·루시드 '돈벼락' 매출 없어도 전기자동차면 OK? 04



Life

[라이프] 라방에 빠진 소비자 유통업계 '락인효과' 군침 11



비효율적 센터 운영, 백년다리 중단... 오세훈-시의회 '격돌'

서울시의회 의원

센터 등 복잡한 복지서비스 개선 백년다리 조성 사업 재추진 요구

오세훈 시장

복지시스템 재정비... 예산 반영 백년다리, 노들섬 재검토 후 결정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7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일자리센터 방문 운영, 백년다리 사업 중단, 균형 발전 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 화면에 서울시의 각종 일자리센터와 재단명이 빼곡히 적힌 PPT 화면을 띄우고는 "서울의 수많은 센터와 재단이 기본 임무보다는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에 지난해 일자리 뉴스가 단 한 건 올라온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일자리 센터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서울일자리포털을 보면 무용지물인데도 서울시가 계속해서 센터와 재단을 만들어 끝없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한번 기구나 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운영 실적이 저조해 이미 모든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행정서비스 체계가 마련돼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복지서비스를 비롯해 행정체

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센터, 재단, 센터를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면서 "실무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과약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가고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 일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복지시스템이 많을수록 좋

는 잘못된 신화 때문에 복지공무원들조차 복지시스템을 스스로 다 알아서 챙기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서비스도 그렇지만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혜택도 저 정도로 복잡해졌다"며 "결국은 어떤 혜택을 받을 거냐가 중요한데 그 혜택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서 서울시가 안심소득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서비스 통폐합 문제를 안심소득 실험과 연관 지어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민주당 의원은 전임시장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 백년다리 사업을 중단한 것 아니냐고 오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백년다리 조성 사업은 한강대교 남단에 보행자 전용교를 놓아 용산구와 동작구 사이의 인공 섬인 노들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박 의원은 "서울시민의 80%가 백년다리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도 백년다리를 건축해도 경관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며 이미 약 2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백년다리 조성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노들섬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아 많이 찾도록 백년다리를 만든다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이라며 내년 8월 말까지 진행되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 송도호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서울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주요 방편으로 하천중심의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공약하고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로 지천 르네상스를 채택했음에도 내년 예산안에 하천(녹번천, 성북천, 성내천) 복원을 위한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예산 사정이 빠듯하다"면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서울시 빚이 18조9000억원이다. 최대한 긴축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스마트도시 기술기업 해외진출 돕는다

서울디지털재단-플러그앤플레이 'CES 2022' 참여기업 발굴·육성

서울디지털재단은 플러그앤플레이와 스마트도시 특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계가전전시회(CES) 2022' 서울관에 참여하는 스마트 기술·서비스 기업의 초기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



도시 기술·서비스 기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도시 특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협력 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플러그앤플레이는 구글, 페이스북 같

은 글로벌 혁신기업을 키워낸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사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활동을 시작했으며, LG, 포스코 등 우수 기업들과의 협력 모델을 쌓아 나가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단순 CES 참가 지원이 아닌 액셀러레이팅과 기술검증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지원해 스마트도시 기업들의 체계적인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봉천동 재개발 속도... 921세대 공급

480번지 일대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 최고 28층 규모 공동주택 9개동 건립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관악구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곳으로,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왔다. 2016년 건축심의를 통

과했으나 사업구역과 인접해 있는 구암초등학교의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와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단지 조성과 공공기여 계획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구역에는 최고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921세대(임대주택 174세대 포함)가 들어서고,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정비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고액채납자 공개... 1위는 중국인

상습채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채납자 1만385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단에 이름을 처음 올린 채납자는 865명(개인 635명, 법인 230개)이며, 총 채납액은 65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7600만원을 내지 않은

셈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법인 채납액 1위는 각각 중국인과 중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개인 채납자는 중국 국적의 웬 위예화(WEN YUEHUA) 씨다. 그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체 등을 운영하던 자로, 지방소득세 12억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최고액 법인 채납자는

중국 국적자 청아슈엔(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과워파인리미티드'로, 지방소득세 15억7000만원을 미납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채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채납자가 393명(45.4%)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채납자는 163명(18.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채납자는 158명(18.4%), 1억원 이상 채납자는 151명(17.4%)으로 뒤를 이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5 | 해짐 / 17:19

11월 18일 (木)
음력 : 10월 14일

수도권 날씨 7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4/16, 동두천 4/15, 가평 1/12, 파주 3/16, 서울 7/15, 양평 3/14, 용인 7/15, 수원 7/15, 인천 10/15, 평택 4/16, 백령도 12/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더는 미국에 기댈수 없다...EU, 유럽군 창설 논의 본격화
▲중세번째 역사결의 시진핑 22년...마오 30년 과오 330자 불과 /사진 뉴스스

▲日, 김창룡 경찰청장 독도 방문에 '엄중항의'
▲대만 외교부 "바이든 대만정책 불변 언급해 감사"



▲브라질,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생필품...19년래 최대폭 상승
▲오징어게임, 첫 4주 16억시간 시청...넷플릭스 히트작 1위 /사진 뉴스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